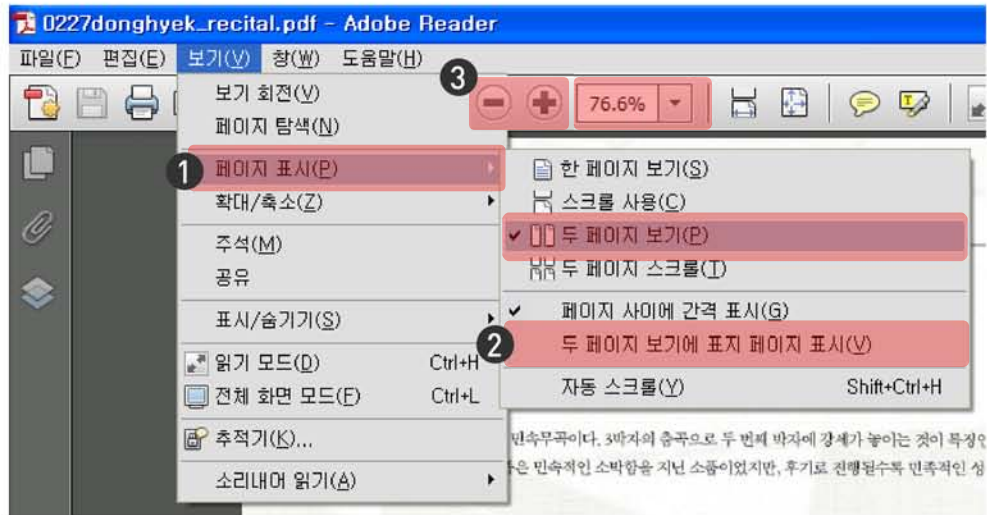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SEONG-JIN**  
**C H O**  
P I A N O  
R E C I T A L



누구도 이끌지 않지만  
시대는 그를 따른다.

The New S-Class  
Feel Intelligent Drive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등대문 (02)2215-2233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경기: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일산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파주 (031)912-9000 인천: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광천 (051)320-6000 금정 1688-2369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1688-2369 원주 (033)741-8800 대전: 대전 유성 (042)602-2000 천안 (041)620-7000 광주 (043)299-9000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1688-2369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S 350 d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30kg, 자동9단),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등급: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8g/km  
S 350 d 4MATIC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75kg, 자동9단), 복합연비: 12.4km/ℓ (도심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4.8km/ℓ), 등급: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56g/km  
S 400 d L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5km/ℓ (도심연비: 11.0km/ℓ, 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53g/km  
S 400 d 4MATIC L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245kg, 자동9단), 복합연비: 12.3km/ℓ (도심연비: 10.7km/ℓ, 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56g/km  
S 560 4MATIC L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275kg, 자동9단), 복합연비: 8.4km/ℓ (도심연비: 7.1km/ℓ, 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34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 (도심연비: 6.9km/ℓ, 고속도로연비: 10.3km/ℓ), 등급: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가장 촉망 받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을 후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 Best' 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브랜드로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고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을 후원하는 것은 가슴 벅찬 경험입니다. 이번 공연은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첫 전국 투어 공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이 많은 분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팬, 친구 그리고 파트너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Mercedes-Benz Korea is delighted to sponsor this performance by the most promising young pianist, Seong Jin Cho.

The opportunity to sponsor Seong Jin Cho's performance is a great pleasure for Mercedes-Benz Korea, as we also believe in the value of "The Best".

This performance is especially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national tour by Seong Jin Cho, the winner of the "17th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2015.

We hope that this great performance by Seong Jin Cho may give the best experience to all the audience as well as give them an inspiration.

Lastl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give our "Thank You" and "Happy New Year" to all our fans, friends and partners.

President & CEO, Mercedes-Benz Korea

**Dimitris Psillakis**

*Dimitris Psillakis*



**2018.1.10 (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1.11 (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베토벤**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8번 Op.13 <비창>**

- I. 장중하고 느리게 -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 II. 느리게 노래하듯이
- III. 론도: 빠르게

**피아노 소나타 30번 Op.109**

- I. 대단히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느리게 감정을 담아서
- II. 매우 빠르게
- III. 노래하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지니고

중간휴식

**드뷔시** 1862-1918

**영상 2집**

- I. 잎새를 스치는 종소리
- II. 황폐한 사원에 걸린 달
- III. 금빛 물고기

**쇼팽** 1810-1849

**피아노 소나타 3번 Op.58**

- I. 빠르고 경쾌하면서도 장중하게
- II. 스케르초 : 매우 빠르게
- III. 매우 느리게
- IV. 피날레: 매우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RICHARD MILLE

A RACING MACHINE ON THE WRIST



## CREDIA



CALIBER RM 033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http://www.richardmille.com)

**8PM, Wednesday, January 10,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8PM, Thursday, January 11,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L.v. Beethoven** <sup>1770-1827</sup>

**Piano Sonata No. 8 in C minor, Op.13 <Pathetique>**

- I. Grave - Allegro di molto e con brio
- II. Adagio cantabile
- III. Rondo: Allegro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109**

- I. Vivace ma non troppo - Adagio espressivo
- II. Prestissimo
- III. Gesangvoll, mit innigster Empfindung

INTERMISSION

**C. Debussy** <sup>1862-1918</sup>

**Images Book 2**

- I. Cloches à travers les feuilles
- II. Et la lune descend sur le temple qui fut
- III. Poissons d'or

**F. Chopin** <sup>1810-1849</sup>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58**

- I. Allegro maestoso
- II. Scherzo: Molto vivace
- III. Largo
- IV. Finale: Presto non tant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SEONG-JIN CHO DEBUSSY

Images - Children's Corner - Suite bergamasque - L'Isle joyeuse

# CREEDIA

## 피아노로 그리는 한 폭의 수채화 피아니스트 조성진 [드뷔시]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 사후 100주년 기념앨범

ALSO AVAILABLE



소평: 피아노 협주곡 1번,  
4개의 발라드 (2016)



소평 콩쿠르 우승 실황앨범 (2015)

이번 앨범에는 드뷔시 영상 1, 2집(Images I, II)  
어린이 차지(Children's Corner)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드뷔시의 곡 '달빛(Clair de lune)'이 포함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  
기쁨의 섬(L'isle joyeuse) 등 수록



## 베토벤

### 피아노 소나타 8번 Op.13 <비창>

다른 사람이 붙여 놓은 베토벤의 부제들이 모두 작품만큼이나 멋진 영감을 주는 멋진 제목들임은 분명하지만, 작품 13의 '비창' (1799)은 작곡가 자신이 제목을 붙인, 드문 케이스의 걸작이다. '비창적 그랜드 소나타' 라는 설명적 제목이 출판될 당시 붙은 제목으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파테틱'이라는 성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피아니스트이자 문헌학자인 파울 바두라 스킨다스는 이 비창적 정서를 '수난', 혹은 고통에 대한 진지한 '각오' 라고 정의한다. 확실히 이 문체작은 울분의 표출만큼이나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앞으로 짚어줘야 할 인생의 고난을 예상하고 그것을 짚어지고자 하는 인내와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매우 피아니스틱하게 만들어졌지만 1악장의 서주 부분은 하이든 등의 교향곡에서 힌트를 얻은 관현악적 아이디어라고 하겠다. 빠른 소나타 형식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주제의 e 플랫 단조라는 특이한 조성 선택과 다시 나타나는 전환 과정에서 그려지는 독특한 전조 과정이다. 당시로서는 본래의 조성과 동떨어진 e 단조로 시작하는 전개부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이며, 재현부로 돌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음계적 불협화음의 음형은 혼란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며 스케일을 넓힌다.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 첫 번째 연인으로 등장하는 줄리 에타 귀차르디는 아다지오 칸타빌레의 2악장을 들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강하다 못해 무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요?" 소박한 감동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베토벤의 선율은 언제 들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듯하다. 송고한 평운을 그리며 멜로디는 중간부에서 단조로 변하며, 곧 이어 악장의 음향적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E장조가 된다. 재현되는 세 번째 부분의 셋잇단음표 역시 리듬의 분주함보다는 차분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3악장은 전형적인 론도 악장으로, 깔끔한 서정과 젊은 베토벤의 기백이 절제 속에 드러난다. A 플랫 장조로 나타나는 중간부의 에피소드는 그 자체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최대한 원초의 먼 곳으로 돌아가 긴 카덴차 풍의 화려한 기교적 진행 끝에 다시 첫째 부분으로 돌아가는 기법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성이다. 코다의 장대한 구조

와 당김음, 긴 구간의 하행 스케일과 폭넓은 아르페지오 반주 등은 당시의 피아노포르테로 상상할 수 있는 음향의 최대치를 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베토벤

### 피아노 소나타 30번 Op.109

1818년 웅대한 'hammerklavier'의 완성을 본 중년의 베토벤은 그 후 강한 의욕에 넘쳐 대작들을 만들어내지만 경제적인 여건은 계속 좋지 못해 풍요로움 속의 궁핍이었다. 어쩌면 대규모의 작품을 써 가는 와중에 한땀한땀 쓰여진 세 곡의 마지막 소나타들은 고달픈 삶을 지속해나가야 하는 불쌍한 자신에 대한 위로와 다독임이었을지도 모른다.

30번 소나타 E장조 작품 109는 애뜻함이 감도는 서정성과 절제와 세련이 공존하는 작곡기법, 노작곡가의 아집이 매력 있게 드러난다. 비바체 마논 트로포로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제시된 1주제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아다지오 에스프레시보라는 느린 템포가 등장하는데, 즉흥적이고 갑작스런 작곡가의 환상곡 풍 전개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번째 부분은 그저 2주제의 제시에 지나지 않는다. 가볍고 사랑스러운 1주제와 대조적으로 무거운 움직임의 2주제는 정확히 분리되며, 짧은 발전부는 1주제만 사용되어 곧바로 클라이맥스를 통해 재현부에 이른다. 코다에서 나오는 조용한 코랄풍의 진행도 한없이 로맨틱하다.

2악장은 교장교장한 노인의 고집스런 모습이 연상되는, 분노가 숨겨진 스케르초 악장이다. 베토벤이 악장의 템포 기호를 프레스토와 프레스티시모(더 빠른 프레스토) 사이에 오래 고민하다 프레스티시모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악장의 극단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간결한 소나타 형식으로, 첫 주제에서 2주제와 보조 주제 등이 파생돼 있다. 발전부의 아이디어는 카논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화음들이 조용히 그 진행을 막고 재현부로 돌입한다. 전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지막 악장을 모두 듣고 나면 앞의 두 악장이 이 장대한 변주곡의 서주처럼 느껴진다. 주제는 '노래하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지니고' 의 지시어로 연주되며, 이어지는 변주들도 그 다양한 성격과 관계없이 이 지침을 본질 속 깊이 간직한 모습이다.



1번주는 주제와 같은 분위기의 느린 왈츠이며, 2번주는 가벼운 움직임의 16분음표 스타카토로 서정성은 뒤로 살짝 숨은 모습이다. 분위기가 돌변하는 3번주는 알레그로 비바체의 2/4박자 진행으로, 까다로운 2성의 인벤션과 흡사하다. 다시 느려진 4번주는 9/8박자인데, 모방 진행을 통한 환상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알레그로로 변한 5번주는 푸가풍의 엄격한 진행인데 실제로는 돌림 노래 풍의 자유로운 다성 기법이다. 마지막 6번주는 주제의 템포로 돌아가 긴 호흡으로 시작해 리듬이 조금씩 잘게 쪼개지며, 화려함으로 멈추지 않는 트릴이 저음과 고음을 오가며 기교적인 발전을 보인다. 당시 건반의 최고 음역까지 주제가 올라가는 클라이맥스를 이룬 후, 다시 주변을 정리한 변주곡은 주제를 정확히 반복하고 조용히 마무리된다.

되며, 피아니스트의 손끝으로 쓰다듬듯 연주되는 화음들의 절묘한 페이드아웃은 동양풍의 정서와 함께 긴 여운을 남긴다.

3곡은 '금빛 물고기' 다. '금붕어'로 이름 붙이지 않아 더욱 특별한데, 드뷔시가 영감을 얻은 쟁반 속 그림의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며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밝은 분위기로 그리고 있다. 물고기들은 때로 수면으로 튀어 오르기도, 깊이 잠수하기도 하는데, 작곡가는 특유의 프랑스적 명인기로 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때론 화려하게, 때론 부드럽게 피아니스티한 효과로 탈바꿈시킨다.

## 쇼팽

### 피아노 소나타 3번 Op.58

## 드뷔시

### 영상 2집

피아노 곡으로 출발한 드뷔시의 인상주의를 잘 설명해주는 작품들 중 제일 먼저 언급해야 할 작품은 두 권으로 된 '영상' 시리즈다. 각각 1905년과 1907년에 만들어진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대상이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분위기와 심상을 고도의 세련미로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교향적 소묘 '바다'에서 받은 당시의 호평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소재의 묘사와 작곡가의 기분을 함께 묘사하는 수법을 피아노 곡으로 녹여낸 걸작이다. 드뷔시 자신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이 곡들은 슈만의 왼쪽, 쇼팽의 오른쪽에 자리할 것입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인 곡이기도 하다.

각 곡집은 세 곡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제 2권은 1권의 착상을 조금 더 미학적으로 심화시킨 느낌과 음의 추상적인 표출이 더욱 두드러진다. 촉각을 포함한 오감을 매우 예민하게 표현한 1곡 '임새를 스치는 종소리'는 온음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뭇가지와 상대적으로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는 이파리들의 움직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깨트리지 않고 조용히 울리는 종소리 등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나의 쇠구와 같은 2곡의 제목은 '황폐한 사원에 걸린 달'이다. 명상풍의 멜로디는 오묘한 화성으로 차분하게 장식

쇼팽이 동시대 어떤 작곡가보다도 보수적이고 형식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예술의 본질이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 생명력이 가장 활발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가 소나타 형식의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은 사실은 이와 연관시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는데, 다행히 그의 소나타들은 모두 탄실한 균형 감각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상상력이 모두 잘 나타난 걸작이다. 다만 소나타 안에 들어있는 네 개의 악장이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지닌 가치로 더 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자유로운 악상과 각기 다른 개성이 뭉쳐있는 것으로는 쇼팽의 소나타 3번 작품 58이 그 대표작이라고 생각된다.

1844년 노앙 조르쥬 상드의 집에서 구상된 이 웅대한 소나타는 작곡가의 환타지와 구성력이 절정에 치달았던 멋진 증거물이다. 이 해는 늘 병약했던 쇼팽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던 해이기도 하다. 봄에는 건강이 악화돼 문제를 일으켰고 5월에는 아버지의 부고로 크게 침울해하기도 했다. 다행히 친누나 부부가 노앙을 방문해 위로해 준 것이 쇼팽에게 큰 힘으로 작용했는데, 넓게 보면 이런 혼란스러움은 또 다른 걸작이 탄생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만큼 이 소나타가 지닌 강인한 정신성과 기백은 육체적인 면에서만 연약했던 작곡가의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

알레그로 마에스토소의 1악장은 규칙을 정확히 따른 소나타 형식으로, 강한 행진곡 풍의 1주제와 따뜻한 정서의 2주제 간의 대조가 인상적이며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경과구와 에피소드들의 달콤함은 작곡가 특유의 수법이 얼마나 노련해졌는지를 보여주어 인상적이다. 스케르초의 2악장은 경쾌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췄다. 빠른 8분음표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아라베스크 풍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B장조의 트리오는 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결들이 기묘한 파장을 만들어 매력을 더한다. 사랑의 밀어를 연상시키는 테마로 시작하는 3악장 라르고는 행복한 잠에 빠져들듯 명상의 순간을 만든다. 야상곡 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규모가 큰 중간부의 아르페지오는 선율인 동시에 몽롱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바탕색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 당당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4악장 피날레는 화려하고 극적인 분위기와 관현악을 연상시키는 큰 스케일을 보이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구성은 전형적인 론도 형식으로, 큰 폭으로 움직여 극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주제는 세 번 반복 되는 동안 반주형의 규모가 커지면서 화려함을 더하고 거기에 걸맞게 설정된 코드 역시 건반 전체를 휩쓰는 장대한 규모의 스케일로 대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쯤씩  
조차남아서 여유를  
들여주세요.



악장 사이 박수하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단,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객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그의 투명하고 풍부한 연주는 듣는 보람과 기쁨을 선사한다.”

- THE GUARDIAN

“콩쿠르 우승자라는 꼬리표에 속지 마라. 이 사람은 진짜 예술가다.”

- SAN FRANCISCO CHRONICLE

“모든 것이 시적이고, 사색적이며, 기품 있었다.”

- FINANCIAL TIMES

## 조성진,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뛰어난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가장 각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의 연주는 신중하면서 시적이고, 확고하지만 부드럽고, 화려한 테크닉과 색채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월한 음악적 균형감을 갖춘 그는 순수하면서도 기품 있는 연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조성진은 2015년 10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쇼팽 콩쿠르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게릭 올슨,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등 거장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이다. 콩쿠르 한 달 후에 DG에서 발매된 조성진 쇼팽 콩쿠르 실황 음반은 한국에서의 그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발매 일주일 만에 멀티 플래티넘을 달성했고, 팝 음악을 포함한 음반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5만장 넘게 판매되었다.

2016년 1월, 그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 런던 심포니 연주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 4개의 발라드로 이루어진 첫 정규 앨범이 2016년 11월 발매되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드뷔시 곡으로 이루어진 솔로 앨범이 출시되었다.

한편, 조성진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공연장에서 리사이틀을 해오고 있다. 2017년, 뉴욕 카네기 홀의 '키보드 비르투오소' 시리즈의 일환으로 스타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그의 데뷔 공연은 매진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암스테르담 콘서트 허바우 홀의 '마스터 피아니스트' 시리즈, 도쿄 산토리 홀, 서울 롯데콘서트홀, 파리 센느 뮤지컬,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그슈타드 메뉴헨 페스티벌, 루체른 KKL,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청받았다.

조성진은 발레리 게르기예프, 예사-페카 살로넨,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안토니오 파파노, 정명훈,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리 테미르카노프, 마렉 야노프스키, 미하일 플레티노프 등 권위 있는 지휘자들과 로열 콘서트 허바우, 파리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NHK 심포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체

코 필하모닉,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한편, 2017/18 시즌 및 2018/19 시즌 하이라이트로는 피아니스트 랑랑을 대신해 협연자로 나선 베를린 필하모닉 데뷔 공연, 안토니오 파파노와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마이클 틸스 토마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렉 야노프스키와 서독일 오케스트라,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EUYO와 BBC 프롬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암스테르담 콘서트 허바우에서 공연이 있다. 또한 영국 바비컨 센터에서의 런던 심포니 정기 공연과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에도 초청받았으며, 레오나르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다비트 아프캄 지휘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 및 정명훈 지휘의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안드레스 오로스코 예스트라다 지휘의 헤시서 라디오 오케스트라, 크쉬슈토프 우르바인스키의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한누 린투 지휘의 핀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공연이 있다.

이 밖에도 베르비에 페스티벌, 뮌헨 프렌츠레게텐 홀,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홀, 키신저 여름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봄 페스티벌,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바덴-바덴 페스티벌 극장에서 리사이틀도 예정되어 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에 첫 리사이틀을 가졌다. 2009년 일본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하였고, 2011년에는 불과 17세의 나이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파리 음악원에서 마셀 베로프를 사사하였고,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His transparent,  
ultimately exuberant performance  
is very rewarding.”

- THE GUARDIAN

“Don't let the competition medal fool you.  
This guy's an artist.”

- SAN FRANCISCO CHRONICLE

“Everything is poetic, introspective,  
graceful.”

- FINANCIAL TIMES

##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overwhelming talent and innate musicality, Seong-Jin Cho is rapidly embarking on a world-class career and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rtists of his generation.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Fall 2015 when he won the coveted Gold Medal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This same competition launched the careers of world-class artists such as Martha Argerich, Maurizio Pollini, Garrick Ohlsson and Krystian Zimerman. Within one month, a recording of Cho's live competition highlights was rush-released by Deutsche Grammophon, propelling the pianist to pop-star status in South Korea. The album achieved multi-platinum sales within a week of its release and triggered a sales frenzy at stores across the country. It reached No. 1 in the nation's pop album chart and has sold well over 150,000 copies to date worldwide.

In January 2016, following on the success of the debut disc, Seong-Jin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first CD of this collaboration features Chopin's First Concerto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nd the Four Ballades, released to critical acclaim in November 2016. A solo Debussy album was released in November 2017.

An active recitalist, he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 2017, he made debuts at Carnegie Hall's Keyboard Virtuosos series in a sold-out Stern Auditorium, Amsterdam's Concertgebouw's Master Pianists series, Tokyo's Suntory Hall, Seoul's new Lotte Hall, Paris's new Seine Musical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Gstaad Menuhin Festival, KKL Lucerne and St. Petersburg's Mariinsky Theatre.

He collaborates with conductors at the highest level such as Valery Gergiev, Esa-Pekka Salonen, Gianandrea Noseda, Antonio Pappano, Myung-Whun Chung, Vladimir Ashkenazy, Yuri Temirkanov, Krzysztof Urbanski, Marek Janowski, Vasily Petrenko, Jakub Hrusa, Leonard Slatkin and Mikhail Pletnev. Orchestral appearances include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Orchestre de Paris, London Symphony Orchestra, Mariinsky Orchestra, Munich Philharmonic Orchestra,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NHK Symphony Orchestra, Philharmonia Orchestr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Budapest Festival Orchestra,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d Russian National Orchestra.

Highlights of the 2017/18 and 2018/19 seasons include debuts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and Sir Simon Rattle stepping in for Lang Lang in Berlin and on tour in Germany and Asia, tours with the Orchestra dell'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and Antonio Pappano,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Michael Tilson-Thomas, WDR Sinfonieorchester and Marek Janowski, and European Union Youth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with concerts at the BBC Proms, Berlin Konzerthaus and Amsterdam's Concertgebouw. He will also play subscription concerts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t Barbican Centre and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t the Kennedy Center, both under Gianandrea Noseda's baton, Detroit Symphony Orchestra with Leonard Slatkin, Philadelphia Orchestra with David Afkham, Orchestra Filarmonica della Scala under Yuri Temirkanov and Myung-Whun Chung, Mariinsky Orchestra with Valery Gergiev, Hessischer Rundfunk Sinfonieorchester with Andrès Orozco-Estrada, NDR Elbphilharmonie Orchester with Krzysztof Urbanski in Hamburg and Finnish Radio Orchestra with Hannu Lintu. He will play recitals in major venues like Frankfurt's Alte Oper, Munich's Prinzregententheater, Verbier Festival, Amsterdam's Concertgebouw, Rheingau Festival, San Francisco's Herbst Theater, La Roque d'Anthéron Festival, Baden Baden Festspielhaus and Vienna's Konzerthaus.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6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t age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In 2012, he moved to Paris to study with Michel Béroff at the Paris Conservatoire and he graduated in 2015. He is now based in Berlin.



# Boston

PIANO

DESIGNED BY STEINWAY & SONS®


## 스타인웨이의 약속

보스톤 피아노를 구매하시고  
10년 내 스타인웨이로 업그레이드 시  
구매하신 비용 전액을  
보상해드립니다.

CREDIA



GP215   
4,500만원  
길이 : 215 cm

GP193   
3,800만원  
길이 : 193 cm

스타인웨이가 디자인한 피아노 *Boston* PIANO  
(주)코스모스악기에서 만나보세요.

스타인웨이 공식수입원

**[주] 코스모스악기**

피아노사업부 02)522-8844 낙원피아노센터 02)763-8338

대 구 지 점 053)629-8844 대 전 지 점 042)489-8844

부산지점 051)804-8844

광주지점 062)515-8844



**COSMOSMUSIC.COM**





**CREDIA**

**CREDIA**

프리뷰 1

**우아함과 품위. 우리가 짐작하고 기대하는 조성진 예술의 지향점**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프리뷰 2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글 | 이지영, 칼럼니스트

## 우아함과 품위. 우리가 짐작하고 기대하는 조성진 예술의 지향점

음악이,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흔드는가? 어찌 보면 음악에 대해 논하고 분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다. 피아노 음악을 들을 때의 내 역할이 들리는 음악을 그저 평하는 일만이 아님에도, 믿을 수 없이 강하고 탁월한 재능은 듣는 순간 나의 음악적 원칙과 신조를 무방비로 만든다. 객석에 앉는 순간마다 이런 일을 겪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의 '음악두뇌'를 강타당하는 일은 좀체로 없다.

초등학교 5학년 조성진의 연주를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의 향상음악회에서 듣는 순간 전신이 흔들리는 '충격'을 느꼈다. 분명 동글동글한 모습의 소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며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을 두드리는 건반에서 나오는 소리는 보기 좋은 조형과 듣기 좋은 아고직을 어른스럽게 갖췄다. 흥을 잡기 어려운 연주였다. "이쯤 되면 내가 이 아이에게 배워야 하겠는데요..." 직접 가르친 학생이 아니어서 쉽게 나온 말일지 모르지만, 당시 심사위원 석에 앉았던 선생님들 대다수의 의견도 향상을 위해 더 이상의 코멘트가 거의 불필요한, 이미 균형 잡힌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를 다시 듣게 된 것은 이미 천재 소년으로 유명세를 치르던 중학생 때다. 그가 해석한 베토벤의 협주곡 '황제'는 비록 1악장 뿐이었지만 당당함과 여유로움, 선 굵은 서정성이 솔직하면서도 강한 설득력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되는 마스터피스 의 모습을 띄었다. 동시에 전곡을 지배하는 여유로움 속에 숨겨진 재능의 무게감은 '언젠가는 대박을 터트리겠구나'라는 확신을 간직한 채 온전히 이 피아니스트의 잠재력으로 전달되었다.

대회 축으로 하여금 참가 연령을 바꾸게 하면서 참가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도 경악할 만하지만, 솔직히 조성진이 반드시 만들어 낼 '대박'이 쇼팽 콩쿠르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호기심과 끼, 피아니스트로서 타고난 기능적 조건 등이 쇼팽이라는 한정된 작곡가의 작품만을 다루기에 차고 넘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는 2015년 가을 바르샤바에 모인

쇼팽 전문가들의 판단이 앞으로 조성진이 그려낼 피아니즘의 빅 픽처를 예상한 데서 비롯되었다 믿는다. 그 증거는 대회의 터줏대감들인 폴란드계 피아니스트들의 의견에서 나온다. "우리 대회도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었다!" 동양계 챔피언이 배출 된지도 오래고 쇼팽의 작품이 범세계적인 것이 된지는 더 오래된 상황에서 이전까지의 쇼팽 양식의 좋은 점만 스마트하게 받아들여 소화하는 동시에 타고난 템퍼라멘트의 형체를 살짝 곁들이는 그의 균형 감각과 재치는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동시에 21세기가 원하는 모습의 쇼팽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 폴란드적인 미덕으로 불릴 수 있는 건강미와 향토성, 과장 없이 깔끔한 구성이라는 기존의 양식을 합리적으로 뛰어넘은 결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어드밴티지나 선입견 없이 성공을 거둔 조성진의 쇼팽 스토리에는 앞으로 이 젊은 음악가가 펼쳐나갈 신세계의 피아니즘을 맛보고 싶다는 선배들의 강한 기대가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피아니스트로의 성장세만 보자면 꽃길만 걷고 있는 듯 보이는 조성진이지만 그 내용은 무난한 모범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실험을 즐기는 모험가에 가깝다. 독주와 실내악,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파격'은 즐거운 서프라이즈를 제공했다. 진하고 농염한 색채로 연주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시종 긴 호흡의 페달링으로 작품 내면의 숨은 환상성을 나타내며 개성 있게 표현한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등은 악기 고유의 울림과 공연장의 어쿠스틱, 청중과 좀 더 직접적이고 여과 없는 공감을 원하는 젊은 야심가의 몸짓이었다고 보여진다.

공연과 음반으로 접한 쇼팽의 발라드 네 곡은 대회 이후 그가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음색과 뉘앙스의 방향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많은 호평을 얻은 음반에서는 스튜디오 녹음임에도 실연을 연상시키는 고도의 집중력과 다듬어진 루바토, 그 안에 양념처럼 곁들여지는 조성진 특유의 즉흥적인 다이내믹 변화 등이 짜임새 있게 나타났다. 고급스런 양감과 세련미가 곁들여진 라이브에서는 쇼팽의 기질이 지닌 음울한 충동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더 분명했다. 멋지게 확장된 스케일의 1번, 희미한 밝음과 강한 어두움이 대조적이었던 2번, 귀족적인 정서가 두드러진 3번과 극적인 드라마를 부드러운





© HARALD HOFFMANN / DO

곡선으로 그려낸 4번 등 조성진의 시야는 매우 넓고 모든 것을 두루 고려하는 혜안이라고 느껴졌다.

변화는 예견된 바이며, 타당한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학 생활을 통해 충분히 농익은 프랑스의 에스프리와 매너는 드뷔시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내놓은 앨범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번 앨범의 핵심은 모든 음악이 궁극적으로 남겨야 할 덕목, '우아함' 이라고 생각된다.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외형(음상)과 격조 높은 뉘앙스에서 향기가 풍긴다. 드뷔시의 대표작이 망라된 이번 음반에서 중심 레퍼토리는 두 개의 세트로 된 '영상' 이다. 1집의 첫 곡인 '물의 반영' 은 자연스러운 프레이징과 맥을 살짝 바꾸는 다이내믹의 서프라이즈가 두드러지며, 3번 '움직임' 에서는 기교의 나열이 아니라 작곡가 특유의 몽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 차지' 여섯 곡 역시 모든 곡에서 개성 있는 필치와 사려 깊은 정성이 느껴진다. 스피디한 진행과 은근한 유희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1곡 '파르나스 산에 오르는 그라두스 박사', 담백한 터치 안에 신비스러움을 숨겨 표현한 5곡 '작은 양치기' 역시 노련함이 느껴지며, 마지막 곡인 '골리워크의 케이크 워크' 는 과장없이 흘러나오는 적절한 스윙감의 왼손, 지나친 감상을 배제한 깔끔한 멜로디 라인 등이 시크한 정서를 던진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초기작임에도 농염한 정서가 많이 묻어나 이색적이다. 프렐류드는 프랑스 풍의 유머와 허세가 느껴지며, 마지막 곡인 '파스피에' 는 모노톤의 진행이지만 그 안의 아기자기함이 재미있다. 대미를 장식하는 '기쁨의 섬' 은 강렬한 필치의 유희라기보다는 개운하고 맑은 수채화에 가깝다. 시종 유연한 흐름과 전환을 꺾으며 꼭 필요할 만큼만 드러내는 비르투오시티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조성진의 절제력을 재확인시킨다. 같은 대회의 1위 출신인 스타니슬라프 부닌의 총동적이고 불규칙한 악상이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설정하는 진공상태에 가까운 청결함과 또 다른 차원의 드뷔시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스로의 미래와 지나온 길을 설명하기 위해 연주자가 사려 깊게 배려한 프로그램을 맞볼 수 있다. 검증 받은 권위의 쇼팽 소나타 3번을 비롯하여 신보 중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영상 2집의 세 곡이 어우러진다. 시작을 알리는 베토벤의 소나타들도 관심거리인데, 특히 피아

니즘적인 요소를 온전히 달관의 언어로 승화시킨 후기 소나타 30번의 요리 솜씨도 관심의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우아함과 품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짐작하고 또 기대하는 조성진 예술의 지향점이다. 짧은 식견임을 차치하고도 분명 이 예상은 엇나가거나 변두리만 건드린 의견일 것이다. 무대 위 젊은 대가는 매 순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음표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희망을 훨씬 뛰어넘는 음악적 요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스물 네 살의 에너지를 온전히 따라가는 일은 그 자체로 힘들지만 기쁘게 벅차 오르는 소식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의 피아노에 귀 기울이는 일만 남았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 # 유학 가서 처음 살았던 곳이 파리였는데, 베를린으로 옮기 자마자 멋진 연주가 있었네요.

몇 차례 프로모션차 방문했다가 막연하게 살아보고 싶어 옮겼어요. 베를린은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는 뜨거운 곳이에요. 도시 자체는 파리가 훨씬 예쁘지만 오케스트라도 많고 음악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막연하게 기회도 많을 거다 생각했죠.

### #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콘서트'를 통해 공연 영상도 볼 수 있지만, 공연이 성사되기까지의 상황을 떠올리면 여전히 두 근거릴 것 같습니다.

사실 베를린 필 공연 전에 래들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제의가 있었어요. 2주 후에 버르토크 2번을 연주할 수 있냐고. 중간에 연주회도 있었고, 전혀 해보지 않은 새 곡을 2주 만에 연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못한다고 했죠. 저를 생각해서 좋은 제안을 해준 건데 거절 후에 마음이 좋지 않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지메르만에게 물어봐요. 제일 많은 의견을 묻고 듣는 멘토예요. '래들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메르만이 먼저, 래들과 제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어요.

### # 베를린 필의 제안을 받은 건 언제쯤인가요?

10월 9일이었어요. 너무 기뻐요. 량량의 대타를 못했어도 기뻐했 거예요. 왜냐면 베를린 필이 나를 생각해줬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주가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가 더 기뻐했어요.

어릴 때에는 카네기홀 리사이틀과 베를린 필과의 협연을 꿈꾸긴 했어요. 그저 꿈이죠. 쉬운 게 아니니까 꿈은 크게 갖자 싶어서. 그런데 쇼팽 콩쿠르 이후엔 그 꿈에 좀 더 가까워졌다 생각했어요. 거만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20대 안에, 혹은 30대 초반에는 베를린 필과의 협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오케스트라는 3~4년 전에 공연 일정을 잡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빨라야 2020년 후반에 무대에 서게 되거든요.

### # 베를린에서의 첫 무대는 만족스러웠나요?

우선 피아노가 정말 좋았어요. 만져본 악기 중 손에 꼽을 정도로요. 어쿠스틱도 훌륭했고 오케스트라며 지휘자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연주했어요.

### # 사람들 반응은 어땠던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 반응이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연주하고 있을 땐 느껴져요. 내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평소엔 반응에 신경 안 쓰지만, 기뻐하실 때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주할 때, 크게 치는 부분에 맞춰 기뻐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거라 생각하시는데, 오해예요. 더 크게 들리거든요(웃음).

### # 피아노를 시작하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뤄졌네요. 쇼 팽 콩쿠르 우승,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과의 음반 계약, 카네 기홀 데뷔, 베를린 필과의 협연까지.

좋죠, 감사하고. 하지만 저는 아직 신인이고, 시작하는 피아니스트라 가능하면 더 많은 뮤지션과 지휘자를 만나 연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단지, 달라진 게 하나는 있어요. 평소 제가 부끄러워했던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 꿈이 피아니스트였잖아요. 지금은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항상 부끄러웠어요. 꿈꿔왔던 피아니스트가 벌써 됐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저를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 속스러웠는데, 이번에 베를린 필과 연주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 모든 과정이 '순항' 상태인지라, 혹시라도 마주하고 싶지 않 은 두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은 없어요. 대신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아야. 제 생각에는 20대가 끝나는 2023년까지는 걱정 없이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하반기까지 일정도 잡혀 있고. 문제는 30대인데, 시기적으로 30대가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새 연주자들이 계속 등장할 테고, 30대는 거장도 아니고 애매하죠.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때 뭘 해야겠다는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 # 어떤 준비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프로젝트 연주를 하면 좋겠어요. 브람스,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해보고 싶고, 지휘자가 될 생각은 없지만 지휘하면서 모차르트 협주곡 연주는 해보고 싶어요.

### # 굳이 '지휘자는 아니다'라고 못 박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휘할 사람은 아니에요. 단원들을 이끄는 일은 절대 못할 거예요. 아니, 리허설 하다가 집에 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단원들 눈치 보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갈 것 같아요(웃음).

##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거리 두기

**# 듀오나 트리오, 콰르텟 등의 실내악 무대는 어때요? 올해 4월에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도 듀오 무대가 있던데.**

괴르네를 좋아해서 지난 2월 파리에서 슈베르트 연주를 보러 갔어요. 같이 간 친구가 괴르네에게 저를 소개해줬는데 저를 안다고, 쇼팽 앨범을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연주하자고 연락처를 가져가시더니 2주 후, "내년에 빈, 파리, 런던에서 같이 연주할 수 있겠냐"고 연락을 주셨죠. 마침 시간이 가능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저로서는 한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 이전에도 성악가와 같이 무대에 서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 괴르네와 연주할 레퍼토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볼프, 피츠너, 슈트라우스, 바그너 등 독일 로맨틱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직 악보를 못 읽었는데 공부 많이 될 것 같아요. 12월부터 시작하려고요.

**#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성악과 기악 반주는 호흡이 조금 다르죠. 어느 쪽을 더 선호하나요?**

연주할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어떤 형태든 듀오가 좋아요. 의견도 긴밀하게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거든요. 아직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괴르네와의 기회도 좋고 정경화 선생님과도 무대에 설 계획이에요.

**# 듀오 외에는 어떤 형태의 연주 포맷을 좋아하나요?**

듀오 다음엔 트리오요. 이전에 7중주도 해봤는데 지휘자가 필요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어요. 같이 앙상블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콰르텟보다는 콰텟이 좋아요. 현악 사중주라는 한 팀과 제가 하는 듀오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연주자의 성격이 악기와 연주형태에 잘 맞아야 그 분야를 오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가 혼자 하는 악기라서 좋아요. 실내악도 협주곡도 좋지만 독주회가 제일 편해요. 그런 면에서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좋아요. 저랑 잘 맞아요. 선욱이 형은 다시 태어나면 피아노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성격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또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출근을 안 해서.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못해요. 늦게 자고 싶은 날이 있고, 피곤해서 10시에 잠들 때가 있고, 늦게 잠든 다음 날엔 오히려 일어나기도 하고요. 건강에는 좋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요일 감각이 없죠.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주말이

라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길을 건다가 문 닫은 식당이 많으면 일요일이고, 사람이 북적거리면 월요일인가 보다 해요(웃음).

**# 아르헨티나는 혼자 무대에 서는 게 외로워서 리사이틀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5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 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파티를 안 좋아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동혁이 형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데, 전 혼자 좋아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2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백 퍼센트 저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있지만 서로 생활하는게 다르다 보니...

**# 저력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꾸려나가죠. 그 힘을 키우려고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택하기도 하고요.**

저는 뭘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과 알아가는 것도 오래 걸려요. 자주 본다도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만약 한 달 동안 매일 본 사람과, 3년 동안 안 보고 지내며 그사이 다섯 번 본 사람이 있다면 저는 3년간 알아온 사람을 더 가깝다고 느낄 거예요.

**# 구축하고 쌓이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연습과 시간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절대 하지 않아요. 2시간도 해보고 3시간, 6시간, 7시간도 해봤는데 4시간이 저한테 맞아요. 그 이상 연습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노동이죠. 테크닉이 좋아지지도 않고 손목만 아프고. 연습도 한 번에 4시간이 아니라 1시간 연습하고 1시간 쉴 때도 있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건 4시간! 그 외엔 악보를 보거나 음악 듣고 책을 읽는 게 더 좋아요.

**# 작품과의 친숙함도 시간을 쌓는 만큼 달라지겠군요?**

맞아요. 정명훈 선생님이 서울시향에 계셨을 때 3년간 협주곡을 많이 했어요. 베토벤 4, 5번, 모차르트 20, 21번, 차이콥스키, 쇼팽 1번, 라벨, 프로코피예프 3번도 했어요. 그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악보를 외워서 치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그게 다 재산이에요. 베를린 필과 협연한 라벨도 정 선생님과 했던 곡인데 이후에도 몇 번 연주하면서 보니 그 곡과 함께한 시간이 8년이나 흘렀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제가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시간이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작품도 횟수보다 기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곡을 20번 연주한 것보다 10년 동안 조금씩 오래 해왔던 곡이 더 편해요. 시간에 따라 곡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항상 느끼지만 음악 해

석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중요해요.

### # 인간관계, 작품 외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더 있을까요? 음식 취향은 어때요?

음식도 마찬가지로요. 전 진한 걸 좋아하거든요. 사골, 와인, 된장, 뭔가 오랜 시간 끓이고 익히고 숙성시켜서 맛이 우러나오는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 오랜 시간 만나온 베토벤, 새롭게 만나는 쇼팽

#### # 독주회에서 베토벤 8번 '비창'과 30번, 드뷔시의 <영상>과 쇼팽 소나타를 연주하네요. 베토벤, 특히 8번 소나타야말로 오랜 시간 알아온 익숙한 인물, 작품이겠어요.

물론이에요. 어릴 때부터 쳐왔고 많이 공부했죠. 쇼팽만큼이나 많이 다뤄본 작곡가인데,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제일 잘 칠 수 있다고는 감히 말 못해요. 왜냐하면 소리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운드는 제가 상상하고 있는 베토벤의 사운드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 # 지금 갖고 있는 소리는 어떤 작곡가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쇼팽이나 드뷔시, 아니면 모차르트, 슈베르트 정도가 제가 지금 낼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베토벤을 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 소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소나타 전곡 중 절반은 무대에서 연주했지만 30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만족스러운, 그나마 나은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30대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은 베토벤, 브람스를 소화할 수 있는 사운드예요.

#### # 멘토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연주한 음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출시되었던 앨범을 본인이 구입하고 절판시켰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는데, 언젠가 과거의 연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음반은 연주했던 당시의 기록이라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생각하지만, 저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겠죠. 다시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메르만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면은 본받고 싶어요.

#### # '비창' 소나타는 오랫동안 알아온 만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칠 때 처음 왼손 느린 부분을 지나 빠른 패시지로 들어갈 때 뭔가 으스스

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비장한 곡이지만 의외로 '포르테'가 많지 않아요. 다 세어봤는데 오히려 '피아노'가 많죠. 이 악장의 캐릭터는 '피아노'라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으스스한 느낌의 1악장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죠.

#### #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는 대중적으로도 매우 익숙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등장하죠. 베토벤의 어떤 멜로디 라인보다도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랑콜리한 느낌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베토벤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뽑아내는 방식은 모차르트의 그것과는 달라요. 베토벤은 조그만 모티프를 발전시키는 건축가 같은데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멜로디죠. 음의 변형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베토벤은 작은 주제를 발전시키는 형태인데, 모차르트는 주제를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변형시켜 형태까지 바꿔버리는 부분이 많죠.

#### # 2악장은 고운 멜로디의 A플랫 장조에서 시작해, 쓸쓸한 느낌의 a단조로, 다시 장조로 이동해 끝을 맺는데요, 작품 중간에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애매한 뉘앙스를 넣었을까요?

2악장은 장조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에는 리게티처럼 감정을 배제시킨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데,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어요. 독일 음악에서 감정적이라고 하면 '속에서 우는' 느낌이에요. 큰 소리 내서 막 울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거죠. 라흐마니노프나 차이콥스키를 보면 러시아는 슬픔과 울음을 마구 토해내는, 표출하는 느낌이 있죠. 프랑스는 또 달라요. 그중에서도 감정적인 드뷔시가 쓴 프렐류드를 들어보면 외로운 느낌이 많거든요.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로는 분명 웃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은 결국 굉장히 농축된, 안에서 감정이 끓어오르는 느낌을 억누르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3악장은 빠른 템포지만 쓸쓸한 느낌, 마지막 중지도 여운이 있죠.

#### # 베토벤이 8번 '비창'을 썼을 땐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어 연주할 소나타 30번은 50세가 되었을 때의 곡이죠. 두 작품 사이의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8번과는 다른 분위기의 곡을 하고 싶어 소나타 30번을 생각했는데, 두 작품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어요. 베토벤 당시엔 소나타의 1악장이 항상 중요했어요. 베토벤조차도 초기엔 1악장이 중요했지만 후기로 가니까 3악장을 중요하게 다루요.

베토벤 음악의 특징인 것 같은데, 30번은 물론 후기 소나타 31번과 32번 모두 마지막 악장이 정말 중요해지죠.

소나타 30번은 악장별로 사람의 인생이 그려져요. 1악장은 '아이'의 순수한 느낌이 들고 2악장은 청소년이나 젊은이의 야망, 열정이 느껴지죠. 3악장은 나이 든 사람이 옛 추억을 테마로 변주를 해요. 기분 좋았던 시절, 유머를 그려내다가 회상하는 장면으로, 5번 변주처럼 밝은 날도 있었고 요동도 치는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 '현실은 이렇구나'하며 끝맺는다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 30번 2악장은 소나타 전곡을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악장인 것 같아요. 다정하면서도 힘 있게 찌르는 감성 선이 멋진데, 지금 얘기한 스토리를 갖고 8번 '비창'처럼 30번에도 부제를 붙인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타이틀이 없는 게 낫겠어요. 타이틀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도 있는 게 상상을 제한시켜버리니까요. 30번은 사람의 하루 일과가 아닌 인생 전체를 그리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야말로 '대곡'이라고 생각해요.

### 꿈꾸는 작곡가 드뷔시와 쇼팽의 상상 세계

**# 한국 관객에게 드뷔시는 베토벤이나 쇼팽보다는 덜 인기 있는 작곡가죠. 성진 씨가 <드뷔시> 앨범을 발표하니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듯합니다.**

쇼팽 콩쿠르 이후 슈베르트 소나타와 드뷔시 <영상>을 연주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슈베르트는 카네기홀에서, 드뷔시 <영상> 2권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에서 했죠. 파리에 있으면서 그의 음악에 매력을 느낀 것도 있고, 미켈란젤리가 연주한 음반을 듣고 감탄해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보면, 쇼팽과 드뷔시는 항상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드뷔시가 쇼팽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둘 다 루바토를 사용하는 데 자유롭다는 점, 감성적인 작곡가이자 시적이라는 것까지.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서 서로 잘 어울려요.

**# 드뷔시는 시처럼 '타이틀'이 있는 레퍼토리도 많죠.**

맞아요. 예를 들어, 드뷔시의 '라모를 찬양하며'를 들으면 추상적이긴 하지만 라모를 느낄 수 있어요. <영상>의 1권 세 번째 곡은 '움직임'이라는 곡인데, 음악에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잘 모르겠다 싶은 곡도 있어요. '프렐류드'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해요.

**# 베를린 필과 협연한 라벨, 앨범에 녹음한 작곡가 드뷔시는 모두 '인상주의'로 분류되지만 두 사람의 음악,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쇼팽과 리스트처럼 드뷔시와 라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라벨은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악보에 메트로놈 표시도 항상 해두고, 그는 오케스트레이션의 황제였어요. '라 발스'를 보면 어떤 부분은 플루트라는 악기가 명확히 연상되고, 파트마다 악기를 그려내는 사운드가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드뷔시는 그 부분은 초월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스트레이션은 할 수 있지만 악기 소리가 아닌 '자연'의 소리를 담아요. 어떤 부분은 물소리를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종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드뷔시는 매우 감성적인 작곡가였죠.

**# 끝으로 1월 리사이틀의 대미를 장식할, 쇼팽 소나타 3번이 남았네요.**

소나타 3번은 처음 연주해보는 곡이에요. 쇼팽이 지은 곡 중 가장 대작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해보니 무척 어렵고, 곡의 길이나 내용으로 봐도 테크닉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쇼팽의 야심작, 그게 3번 소나타예요. 쇼팽은 생전에 '너는 마주르카나 녹턴 같은 소품만 작곡할 줄 아는 작곡가'라는 말을 들었던대요. 놀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나타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도 이런 대작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잘 쓴 곡이에요. 1악장, 특히 3악장 멜로디도 너무 잘 쓴 것 같고요. 상상력이 풍부한 천재예요. 그를 정말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이 연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1월 7일 부산, 10,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3일 전주, 14일 대전.)

글 | 이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클럽발코니 2018년 1월호 발취



# 2018 CREDIA SEASON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lub BALCONY  
& CIELOS Club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1577-5266

credia.co.kr · · ·

## PIANO RECITAL SERIES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1.10(WED)-1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ok Lim Piano Recital  
3.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3.17(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Eugeny Kissin Piano Recital  
10.28(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CHAMBER ORCHESTRA SERIES

###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Joshua Bell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5.3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빅토리아 뮐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6.8(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Mis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6.16(SAT) 롯데콘서트홀

###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Yo-Yo Ma & Silkroad Ensemble  
10.1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STARDUST SERIES

### 지용 리사이틀 - I AM NOT THE SAME

Ji Recital  
2.24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리처드 용재 오닐 - DUO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3.31 (SAT) 롯데콘서트홀

### 신지아 리사이틀 - 反轉 반전

Zia Hyunsu Shin Recital  
4.28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바이츠 퀸텟 with 임동혁

Veits Quintet with Dong Hyeok Lim  
8.14 (TUE) 롯데콘서트홀

### 스테판 잭키브, 콘라드 타오 & 제이 캠벨 - 보헤미안

Stefan Jackiw, Conrad Tao & Jay Campbell - Bohemian  
12.20 (WED) 롯데콘서트홀



## INTERNATIONAL ORCHESTRA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Santa Cecilia Orchestra & Antonio Pappano  
11.15 (THU) - 16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다닐 트리포노프(15일), 조성진(16일)



열정의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130년 전통의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역사적 첫 내한!



## PARK CONCERT

###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8 (SAT)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 조수미 콘서트 - One Night in Paris

Sumi Jo Concert - One Night in Paris  
9.9 (SUN)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 FAMILY & ATTRACTIONS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1.27 (SAT) - 28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유키 구라모토 - Romance in Heartstrings

Yuhki Kuramoto Concert  
5.23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디즈니 인 콘서트 - FROZEN

Disney in Concert - FROZEN  
5.19 (SAT) - 20 (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Christmas Concert - Yuhki Kuramoto with Friends  
12.26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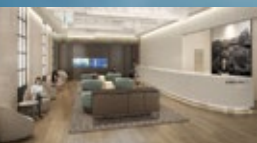




#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DIA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항공사



선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갖는다.

The C-Class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밤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경기: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일산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파주 (031)912-9000 인천: 인천 송도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김천 (051)320-6000 금정 1688-2369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1688-2369 원주 (033)741-8800 대전: 대전 유성 (042)602-2000 천안 (041)620-7000 청주 (043)299-9000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1688-2369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3km/ℓ (도심연비: 10.1km/ℓ, 고속도로연비: 13.1km/ℓ), 등급: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54g/km  
 C 200 AV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4km/ℓ (도심연비: 10.2km/ℓ, 고속도로연비: 13.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52g/km  
 C 200 d (배기량: 1,598cc, 공차중량: 1,595kg, 자동7단), 복합연비: 14.5km/ℓ (도심연비: 12.6km/ℓ, 고속도로연비: 17.6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1g/km  
 C 220 d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6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5km/ℓ (도심연비: 13.1km/ℓ, 고속도로연비: 16.6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1g/km  
 C 220 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725kg, 자동9단), 복합연비: 14.7km/ℓ (도심연비: 13km/ℓ, 고속도로연비: 17.5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9g/km  
 C 250 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785kg, 자동9단), 복합연비: 13.8km/ℓ (도심연비: 12.4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8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CREDIA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